

M G Y E O N G N A M MECENAT

2011 vol. 011
Gyeongnam Mecenat



- | 결연식 스케치 / 신규결연팀 소개
- |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 아름다운 동행
- | 문화의 향기를 찾아서

소녀의 꿈

소녀, 꿈을 그리고 꿈을 이루다



“만약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2주라면 책을 한 권 읽고, 2시간이라면 영화를 한 편 보고 2분이라면 그림을 보라.”는 말이 있다. 나는 가끔 마음이 복잡하거나, 말랑말랑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습관처럼 미술관이나 갤러리로 향한다. 작품 앞에서 온전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그곳에 가면 가장 핫(hot)한 트렌드와 삶의 본질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표현한 작품들로 가득하다.

나와 숲갤러리의 인연도 2년이 다 되어간다. 매 달 전시를 준비하며 느끼지만 예술가들의 예리한 관찰력과 본질을 보는 남다른 시선은 참 신선하고 또 감동이다. 그동안 매 달 새로운 작가와 작품,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영화고 드라마다.

엄마 손을 잡고 갔던 미술관, 그림을 좋아하던 소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 그림도 전시해보고 싶다는 그 꿈을 25년 만에 이뤘다. 2011년 성산미술대전에서 1층 입구에 걸려있는 내 그림을 봤을 때, 그 때의 두근거림은 아직도 선명하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기회도 계기도 없었다. 그런데 1년 전 숲갤러리를 오픈하면서 안령희 작가님을 만나게 되었고, 용기내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배우는 것 말고, 같이 그리자”고 하셨다. 따뜻함과 자상함으로 이끌어주시는 멘토 덕분에 붓을 들 수 있었다. 오랜 꿈을 그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조언해주신 안작가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고민 끝 선택한 소재는 ‘장미와 짚레’다. 대학생 때 장미와 짚레라는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다. 그 당시 책을 읽고 나서 큰 감동과 의미로 다가 왔고, 그 느낌들을 그림으로 꼭 표현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두 가지 소재를 면 분할을 통해 한 캔버스 안에 담았다. 장밋빛 인생과 순박한 삶은 가지 얽은 길과 같다고 생각한다. 항상 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장밋빛 인생을 꿈꾸지만 내면에는 순수한 짚레를 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붉은 장미와 대비되도록 바탕은 울트라 마린으로 표현했고, 짚레는 덩불 속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녹색을 써보았다.

예전에 자신의 상황과 똑같은 작품이라며, 숲갤러리에서 큰 감동을 받고 간다며 울먹이던 환자분을 본 적이 있다. 오랫동안 관객의 눈과 마음에 머물러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처럼 나의 그림과 삶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꿈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바람의 딸 한비야가 “사람들은 실패하면 어찌지 하는 리스크 때문에 99번의 기회를 놓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만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기다린다. 지금도 할까말까 주저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을 망설임이 아니라 도전으로 인한 설렘으로 채우길 바란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는 당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the큰병원
백 경 희



CONTENTS

- 02 휴(休)
소녀의 꿈 _ the큰병원 백경희
- 04 결연식 스케치 / 신규결연팀 소개
- 09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 아름다운 동행
고려철강 _ 가곡전수관
화영 _ 김금희무용단
피케이밸브 _ 창원큰들
경남에너지 _ 극단 객석과 무대
STX조선해양 _ 대산미술관, 안젤루스소년소녀합창단,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 20 찾아가는 공연
창원상공회의소
- 21 CEO & CULTURE
(주)창민테크론 김병주 대표이사
- 22 예술동아리 문화봉사활동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풍물패 '민예'의 복지원 봉사
- 24 예술과 삶
꽃의 시인 대여(大輿) 김춘수
- 28 문화의 향기를 찾아서
합천예술기행 _ 경남오페라단 전나는
- 32 발굴, 경남의 예술단체
극단 나비
두루지아 플루트 앙상블
- 34 지상강의
명품 중소기업으로의 도약, 정답은? _ 중소기업중앙회 김소정
- 38 문화파발마
문화캘린더, 공연프리뷰

04



20



28



mecenat

메세나

문화예술의 날개가 되다!

'메세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으로 고대 로마제국을 문화강국으로 이끌었던 재상 마에케나스(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대한민국 유일의 지역 메세나협의회로서, 경남의 기업들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행복한 문화경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발행인 박영빈
| 편집인 박덕운
| 발행일 2011. 11. 15.

| 발행처 경남메세나협의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5 경남은행 3층
| www.gnmecenat.or.kr
| Tel 055-285-5611 | Fax 055-285-5610

| 기획·디자인
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 055-296-4995

| 인쇄 (주)화성 Tel 055-295-4995

결연식 2011

경남메세나협의회

스케치

삶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다. 시간이 흐르면 까마득히 기억조차 못하는 가벼운 만남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향기를 더해가는 우리네 장맛 같은 깊은 만남도 있다.



단풍 든 가로수 잎사귀가 가을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는 10월 22일 오후, 가로수 길을 무심히 지나는 이들 모두 한 폭 수채화의 주인공이 된다. 경남도립미술관 앞 풍경이다.

몇 시간 후면 이곳 경남도립미술관에선 뜻 깊은 행사가 열린다. '2011 하반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이다. 문화공간에서 결연식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대감으로 연신 시계를 본다. "아직 멀었나?" 재촉할수록 시간은 더디 간다.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연 '2011 하반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공식행사는 경남도립미술관 로비에서 열렸다.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는 이날 결연식의 주인공 중 하나다. 개막연주가 더욱 돋보인 이유다. 기타와 플루트, 하프가 어우러져 민요와 가곡을 넘나드는 동안 참석자들은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어깨를 들썩였다.

박영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결연식이 우리 경남 문화의 상징인 이곳 도립미술관에서 음악과 미술이 어우러진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 뜻 깊다." 며 "매칭펀드 자금이 9월에 소진될 정도로 기업과 문화예술 결연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당장 결연하자고 신청해오는 팀이 많아 행복한 실정" 이라며 메세나 성공의 역사에 함께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직접 참여는 못하였지만 임재호 행정부지사를 통해 "여러 여건상 도가 문화예술인들이 왕성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지원을 못해 늘 안타까웠는데, 메세나를 통해 우리도의 문화예술진흥발전에 기업인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며 "앞으로 도에서도 경남의 예술진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메세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3.15 뮤직컴퍼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마무리 된 2011년 하반기 결연팀은 신규 7개팀을 포함한 24개 팀이었다. 창립시 79개 회사에서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난 메세나 회원사는 지금 183개 기업이다. 결연팀은 10개에서 60개로 부쩍 늘었다. 경남메세나 결연 4년째인 올해의 성적표다.

토기의 환상

어느 날 흙은 꿈을 꾸었습니다. 토기가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꿈꾸고 세상 모든 것을 품고자 하는 꿈을 꾸니다.
 한날 흙이었으나 다시 태어나 저 구름 속 멀리 보이는 하늘까지 품으리라. 사랑과 꿈과 희망을 담으리라..
 흙은 물과 불을 만나 비록 고관대작의 방 한켠을 장식하는 청자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토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농부의 소중한 꿈을 담은 옥수수 씨앗과 보리 종자를 품다, 서투른 누군가의 몸짓에 그만 옆구리가 깨집니다.
 그렇게 천덕꾸러기 되어 풀밭 한쪽 어딘가에 내버려집니다. 부서진 토기는 다시 꿈을 꾸니다.
 곱게 곱게 다시 부서져 나 태어난 원시의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토기의 꿈을 바라보다 나도 그만 꿈을 꾸니다. 이걸 나의 꿈인가요? 토기의 환상인가요?

박덕규 展

이번 결연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화가 박덕규 화백의 문화특강과 전시회다. 하동 출신의 박덕규 화백은 1957년부터 학교미술교육현장에서 몸담아오다 퇴직이후 폐교를 활용한 <박덕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제껏 한 번도 자신의 작품을 시장에 내지 않았다. 1950년대부터 그저 그리기만 했다. 자신의 얼굴에 주름살 하나 더하듯, 그리고 또 그린 자신의 작품을 차곡차곡 모았다. 이번에 전시된 138개의 작품들은 그 중에서 가려낸 박덕규 화백의 한 세월의 분신이다.

박 화백은 특강을 통해 예술인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씨앗을 심기는 쉽지만 싹이 나고 꽃피게 하기는 힘들다.” 며 기업과 예술의 만남인 결연식보다 결연의 지속성에 대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결연 행사에 참여한 후원 기업인들의 좋은 예술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예술”이며 “문화예술가들의 팔다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튼튼한 허리의 역할을 해 달라.” 고 당부했다.

요즘,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박 화백이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는 예술로는 밥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다. 작품을 시장에 내지 않는다는 그만의 철학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한 작가의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회를 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작품 활동 초기, 생활저변의 그림을 그리다 그는 1970년대 후반, 문득 토기를 접하게 된다. 민족혼으로 빛어낸 토기의 환상이 시작된 것이다. 천년의 시공을 넘나드는 소재에 맘이 끌렸다. “인류가 사용하던 생활도구 중 가장 오랜 기간 이용하던 것이 흙으로 빚은 토기이고 이 한 점의 그릇에 온갖 고뇌와 번민, 땀과 한숨이 물과 흙과 불과 어우러져 있으며 빛어지는 과정 속에 옛 사람들의 감성이 깃들어 있다.” 고 제작이유를 밝힌 그의 작품 <토기의 환상> 시리즈는 세월따라 좀 더 세련된 조형미로, 더한층 애뜻한 색채로 빛난다.





토기의 조각과 부분들이 박 화백의 화폭에서 어우러지는 동안 아마 박 화백도 천년의 세월을 넘나 들며 즐겼을 듯하다. 소나기 내려 질퍽해진 흙길에 동네 아이들이 뛰놀고 수많은 생명들이 오갔을 듯한 느낌의 질감, 그 위에 표현된 질박한 그릇의 흔적이, 온전하지조차 못한 토기의 모습이, 마치 우리네 한 살이처럼 겹쳐진다.

.....감동



“초기에는 사실주의와 인상파 풍의 그림을 그리다 후기에 들어와서 고전과 현대기하학이 어우러지는 자신만의 현대미술 장르를 개척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지역에 현존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귀중한 그림을 만나 행복합니다.” **경남은행 박영빈 행장**




“고향이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뛰어놀며 성장하고 흰머리 살짝 비치는 50대인 지금까지, 지나간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같았습니다. 박 화백 작품은 처음 접하지만 마치 나의 지난 발자국과도 같을 만큼 마음에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삼원테크 이택우 대표이사**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화백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의 훌륭한 지역 작가를 더 발굴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경남자동차판매 이인호 대표이사**

“나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에 어떤 소리가 들었을까 생각하며 그림을 봅니다. 박 화백 그림의 옛스러움 속엔 바람소리가 든 것 같습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남지회 고승하 지회장**

몇몇의 인터뷰가 말해주듯이, 전시장을 찾은 이들의 감상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양만큼... 박덕규 展을 뒤로한 채 미술관 야외 테라스에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가을 저녁 답지 않게 구름이 많다. 향아리의 평퍼짐한 영당이 같기도 하고 잘록 휘어지며 뻗은 가녀린 목인 듯도 하고, 낮에 마신 꽃향기 나는 찻잔이었던가? 아님, 방금 전 흠뻑 취해있던 화폭 속 토기의 환상들이 저 하늘에 옮겨진 것인가?

나름의 쓰임으로 태어나, 영욕의 세월과 함께 깨지고 버려지고 땅속에 묻힌 토기 조각들이 박 화백의 화폭에서 꿈인 듯 환생했다. 예술은 이렇듯 시대를 거스르는가 하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으로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기도 한다. 기업과 예술이 만난 메세나처럼... 



2011

경 남 메 세 나 협 의 회

신규 결연팀

○ **경남신문사 회장 _ 김순규**

○ **3.15뮤직컴퍼니오케스트라 대표 _ 설진환**

경남신문사는 65년 역사를 지닌 경남지역 대표 일간신문사로, 지역 사회 공헌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기업이다.

3.15뮤직컴퍼니오케스트라는 지휘자를 비롯한 30여명의 지역출신 전문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단체로 다양한 형태의 오케스트라 공연, 실내악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 **그린산업(주) 대표이사 _ 정병홍**

○ **창원국악관현악단 단장 _ 김연옥**

그린산업(주)은 마산 회원구에 위치한 전기전자부품을 주력생산물품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에어컨의 핵심부품인 전자식 팽창밸브의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체제를 구축하여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창원국악관현악단은 정회원 80명과 청소년단원 104명 등 약 20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창원(마산)의 대표적인 국악관현악단으로 1989년에 창단되었다.

○ **명성개발(주) 대표이사 _ 이성원**

○ **M&S무용단 단장 _ 이명선**

명성개발(주)은 양산에 소재한 기반공사전문 토목시공업체다. 대표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17년째 건실한 기업현황을 유지해오고 있다.

M&S무용단은 2003년 천일무용단으로 창단, 2008년 M&S무용단으로 개명하여 활동 중이다. 총7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100여회 이상의 국내·외 공연경력이 있다.

○ **(유)상화도장개발 대표이사 _ 이번호**

○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회장 _ 이미애**

91년 법인전환과 함께 (유)상화도장개발로 정식 출범하여 두산중공업(주)를 비롯한 도내 대기업 등에서 대형공사를 지속적으로 시공하였으며 (주)대동주택을 비롯한 대형주택건설사의 협력업체다.

1992년 경남크로마하프연주협회로 창단하여 2010년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 중인 단체다. 정기연주회와 지역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와 위문공연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 **영광산업(주) 대표이사 _ 조우성**

○ **창원시 윈드오케스트라 단장 _ 김성하**

영광산업(주)은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불력을 제조·납품하는 회사다. 現 소재지는 전남광양이나, 12년간 경남고성에서 회사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직원의 90% 이상이 경남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 창원시 윈드오케스트라는 1980년 마산관악합주단으로 창단하여 최근 창원시 윈드오케스트라로 개명한 단체로 경남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관악음악의 초석을 다져온 연주단체이다.

○ **윤한의원 원장 _ 윤진구**

○ **불모산영산재보존회 회장 _ 김차식**

윤한의원은 1989년 마산 산호동에서 개원하여 운영 중인 한방의원으로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 현재 결연단체와도 수년전부터 상호교류협력관계를 맺어왔다.

불모산영산재보존회는 1996년 창단되어 불교의식으로 잘 알려진 영산재 및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 생전예수재, 수록재등 불교의식 전반을 전승하고 있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단체다. 🌿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가온 새로운 E-Class
The new E 200 CGI BlueEFFICIENCY



125! years of innovation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최신형 3D 터치 내비게이션과 타는 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첨단 안전 시스템, 최상의 주행성능을 갖춘 친환경 엔진까지. 이 아름다운 차를 가지는데 58,500,000원이라는 것은 당신의 기억 속에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www.Mercedes-Benz.co.kr

메르세데스-벤츠 경남공식딜러 전 시 장 :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28-9 / (055) 296-1004
경남자동차판매(주) 서비스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28-9 / (055) 296-1002
진주서비스센터 : 진주시 호탄동 609-9번지 / (055) 743-1006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00 CGI BlueEFFICIENCY 1,796cc, 1,665kg, 자동5단, 10.8km/ℓ, 3등급, CO₂ 배출량 217g/km • E 220 CDI BlueEFFICIENCY 2,143cc, 1,660kg, 자동5단, 15.1km/ℓ, 1등급, CO₂ 배출량 178g/km
• E 300 ELEGANCE / AVANTGARDE 3,498cc, 1,775kg, 자동7단, 9.2km/ℓ, 4등급, CO₂ 배출량 254g/km • E 350 AVANTGARDE 3,498cc, 1,815kg, 자동7단, 9.2km/ℓ, 4등급, CO₂ 배출량 254g/km • E 350 4MATIC AVANTGARDE 3,498cc, 1,885kg, 자동7단, 8.5km/ℓ, 4등급, CO₂ 배출량 276g/km • E 63 AMG 6,208cc, 1,940kg, AMG SPEEDSHIFT 7단 멀티클러치, 6.5km/ℓ, 5등급, CO₂ 배출량 360g/km • E 350 Coupé 3,498cc, 1,670kg, 자동7단, 9.2km/ℓ, 4등급, CO₂ 배출량 255g/km • E 350 Cabriolet 3,498cc, 1,790kg, 자동7단, 9.0km/ℓ, 4등급, CO₂ 배출량 261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 아름다운 동행

기업이 예술을 후원하고
예술이 기업을 윤택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동행'이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원사들 사이에서 탄탄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

조그만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되는
문화적 시너지 효과는 이제 경남지역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기업들이 만들어나가는 21세기
문화경쟁력은 그들이 후원하는 물질적 가치의
볼륨을 훨씬 뛰어넘는 기업가치 향상의
필수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남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들이
만들어 내는 그 생생한 '아름다운 동행'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자.



(주)고려철강 & 가곡 전수관

가곡, 그 영혼의 소리에 반한 (주)고려철강

우연히 듣게 된 가곡의 울림에 영혼이 반해버린
고려철강 한철수 대표. 가곡 전도사를 자처한
한 기업가의 가슴 뛰는 가곡사랑 이야기.



—어느 새벽

푸르스름한 창밖의 고즈넉함을 바라보다 문득, 세월 저 먼 곳으로 생각이 달려갔다. 한 방울 맑은 이슬 똑 떨어지는 소리 차마 흘러들지 못해 새벽잠 깬 선비는, 어스름푸레 밝아오는 먼 산을 보며 그도 맑은 소리로 아침을 열고 싶었으리라. 가야금, 거문고 곁에 있다면 청아한 목소리로 시조 한 수 읊고 싶은 바람 또한 가져보았으리라. 이럴 땐 어딘가에서 애잔한 가락과 함께 그 옛날의 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저 실없는 바람으로만 늘 끝냈던 시간들, 이젠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련다.

—국악 반주에 얽힌 느림의 시간

가을 정취 물씬 풍기는 10월 어느 저녁, 마산 합포구 석전동에 있는 가곡 전수관을 찾았다. 늦었나 하며 서두른 주차를 마치는 순간, 아득한 곳에서 울리는 듯 한 노랫소리가 들린다. 유네스코 등재 한국의 3대 성악곡 가곡, 판소리, 범패 중 첫날의 가곡 공연이 시작된 것이다. 끊길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끊기는 맑은 소리가 머릿속을 깨운다.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는다. 공연장 안, 좌석은 꽉 찼다. 누구 할 것 없이 한껏 동화된 모습이다. 당 탕 탁탁. 느슨한 마음을 채주는 장구 소리와 마당. 무거운 듯 가라앉는가 싶으면 어느새 다시 힘차게 튕겨 오르는 거문고 소리에 같이 장단도 맞추어보고 가곡의 호흡을 따라 해 보는 이들, 사이 비집고 걸터앉아 기자도 같이 흥내 내어 본다. 남창 여창이 번갈아가며 마음을 홀리다 어느새 마지막 대받침이다. 남창여창이 어우러진 태평가로 공연은 끝났다. 숨 막히게 긴 아름다운 시간이 어느새 우리를 그 옛날 어느 풍류방으로 옮겨 놓았다.



영혼의 만남

2010년, (주)고려철강의 한철수 대표는 우연히 가곡 전수관에 들었다. 이곳에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문화를 만났다. 첫사랑에 가슴 설레듯, 가곡과의 첫 만남 이후 가곡 전수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누가 억지로 지운 것도 아닌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느끼며 가곡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마다 손님들을 가곡 전수관으로 직접 모셔간다. 가곡이 어떤 것인지 알리기 위해서는 가곡 전수관을 찾는 것이 제일 빠르고 중요하단 것이다. 가곡을 들으며 심신을 맑게 가라앉힌 후 회의를 연다는 그는 가곡전수관의 홍보대사다. 지난 10월 22일 일본 상공회의소 초청회의에도 가곡을 선보이기도 했다.

각 지역마다 특화된 자랑스런 문화가 있다. 하지만 마산엔 세계적인 문화 가곡이 있다. 세계적인 문화를 알아보고 그것이 세계 곳곳에 알려질 때까지 끝나지 않을 한 철수 대표의 가곡 사랑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전한다. (주)고려철강의 대표이자 마산 상공회의소의 회장인 한철수 대표는 회사 창립 기념식 대신 그 비용으로 저소득 가정의 집을 고쳐주고 겨울이면 사랑의 연탄나누기와 성금으로 겨울을 데운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일이라면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만큼 많은 일들을 해낸다.

선물

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무료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처음 본 공연에 반한 마음이 무료강좌 신청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직접 문화를 누리는 이들과 새로운 우리 문화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이들, 무턱대고 맞춰본 장단이 재미있었다는 고사리 손의 아이. 이들에게 이제 가곡은 멀고 먼 옛날의 유물이 아니다.

우리 문화와 예술만 생각하고 그 한길만 걸어온 중요무형문화재 제 30호 가곡예능보유자와 그 가치를 알아보는 기업인의 만남은 한 예술단체에 주는 기업의 후원을 넘어, 우리 지역민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



(주)화영 & 김금희무용단

밀양의 문화공간을 활짝 연 (주)화영

고향을 떠나지 않고 춤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명석을
깔아 준 기업이 있다.

선박엔진 부품업체 (주)화영의 후원으로 문을 연 사회문화
예술교육센터 춤공간 나눔과 김금희 무용단의 선 고운
인연을 취재했다.



무심히 흘러내리는 강물조차도 눈부시다. 가을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
는 오후, 밀양(密陽)에 들어섰다. 수많은 전설을 품고 있는 이 도시는 내게도
사연을 만들어줄 것 같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 때문인지, 밀양 연극촌
의 다양한 이야기 때문인지는 모른다. 다만 그곳에 가면 나도 어느 한 이야기
의 주인공이 될 듯하다.

— 밀양의 버선발 소리

강변도로 옆 나지막한 2층 건물, 정갈하게 빛나는 마루에 발을 내려놓는다.
순간, 선녀의 고운 버선발이 아님이 미안해진다. (주)화영과 경남메세나협회가
함께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센터 춤 공간 나눔의 연습실 안엔形形色색 한
복치마를 두른 연습생들이 보인다. 사뭇히 내댈는 버선코가 참 아름답다. 화
영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시민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화영과 경남메세나협회가 함께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센터 춤 공간 나눔.
이름 그대로 화영의 메세나 후원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무용단은 있지만
변변한 연습공간이 없었던 김금희 무용단은 각종 무용제에서 수상한 상장과
상패가 쌓여가는 것과는 반대로 늘 힘겨웠다. 그때 메세나 협회를 알았다. 막
연하게 찾아간 곳엔 메세나 신청 후 결연 맺을 문화단체를 기다리고 있는 화
영이 있었다. 그것도 밀양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었다.





나눔이 나눔을 낳는 곳

선박엔진 부품업체 화영의 이홍원 대표는 연습공간을 내주고 바라는 게 없다. 공연에 초대하면 “내가 가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마다한다.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 때 자그만 공연이라도 올리고 싶다는 뜻을 전할라치면, “그 정열로 창작활동을 하라”고 한다. “그저 예술인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창작활동을 해나가는 것만도 만족한다.”고 하니 김금희 단장이 해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근처 화영의 사원아파트 주민들에게 1순위로 무용실의 문을 열었다. 화영 직원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든 언제나 대환영이다. 뿐 만 아니라 춤 공간의 나눔을 무용단만 쓸 수 없었다.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운영비와 강사비만 겨우 나올 정도의 최소 금액으로 시민들에게 춤을 가르친다. 장르구분도 없다. 단지 후배들을 가르치고,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후배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단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느낀다는 단장.

꿈을 이루는 공간, 춤 공간 나눔

공간하나로 많은 이들이 소신적 꿈을 이루고 있다. 밀양 사람으로 무심코 넘나들던 무안고개, 어느 날 회사이름을 새긴 커다란 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화영. “음? 화영?? 춤 공간 나눔을 내어준 그 회사구나...”하며 목례한 번 하고 지나간다는 강습생, 너울너울 춤추는 것이 좋아 연방 올려대는 휴대폰을 허리춤에 차고도 버선발을 사뿐 옮기는 강습생, 40년 넘는 세월동안 남의 공연을 보며 부러워만하다가 자신도 춤을 출 수 있게 돼 기쁘다는 강습생, 춤을 배우기 위해 직업을 바꾸었다는 강습생, 딸이 처녀 적에 그리도 추고 싶어 했던 춤을 가르쳐 주는 곳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여든 줄 노모는 쉰 중반의 딸에게 더 늦기 전에 꿈을 펼쳐보라며 권했다고 한다. 노모의 권유로 몸을 덩실거리는 중년의 여인을 보며, 언젠가 접었던 내 꿈에 앉은 먼지를 살며시 걷어내 본다.

또 한 사람, 적은 보수지만 열정을 다해 강습생들을 가르치는 강사 또한 이곳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중이다. 내년엔 개인 무용발표회를 열겠다는 아무진 꿈을 키워간다. 특별한 수입은 없지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에 겨워하는 단장과 그곳에서 접었던 수많은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화영이 있어 가능하지 않을까.

직원 복지에 힘쓰고 수많은 곳에 후원을 하지만 남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이 기업의 역할이라 믿는 사람. 험악한 문화단체가 행여 불편할까봐 회사 직원처럼 대하라는 이홍원 대표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그가 무척 궁금해진다. 밀양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햇살 같이 따뜻한 사연을 발견한 오후, 밀양은 역시, 密陽이다.

피케이밸브(주) & 창원 큰들

천지를 뒤흔드는 큰 울림을 만든 피케이밸브(주)와 창원 큰들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은 130명 아마추어 시민
풍물단이 펼치는 열정적인 공연으로 한마디로
끓어오르는 용광로였다. 뜨거운 땀방울이 빛은
얼음물보다 더 시원한 카타르시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피케이밸브(주)의 조용한 후원이 있어
가능했다. 그 신명난 어울림의 현장을 함께 했다.



9월 초순 날씨는 저녁나절까지도 시원한 곳을 찾아 들게 한다. 유난했던 지난여름
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사람들이 모인 창원 성산아트홀 대공연장. 오늘 제대로 뜨
거운 맛을 볼 것 같다.

창원 큰들

창원 큰들 정기공연은 조선 선조와 광해군 때 <동의보감>을 집필한 의성 <허준>선
생의 일대기를 그린 마당극 <허준>이다. 돈의 유무나 신분의 고저에 상관없이 누
구나 평등한 의료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랐고, 몸소 실천했던 조선명의 허준. 무거울
법한 소재와는 달리 우등생 허준, 왕따 허준의 의사 성공기로 마당극 특유의 해학
이 묻어난다. 시조가 랩이 되고 트롯이 비트음악으로 재창조되고 현대와 고전이 어
우러진, 그야말로 시공을 넘나드는 제대로 된 퓨전마당극 <허준>속으로 무대와 객
석은 하나가 되어 빠져들었다. 한바탕 웃고 즐기는 사이 가슴 시원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에 전해진다. 과연 “관객들에게 가슴 뻥 뚫리는 후련함을 선사하겠다.”던 큰들
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다.

마당극에 이어 전통예술원 ‘마루’의 죽방울 놀이와 버나놀이가 펼쳐졌다. 가는 끈
에 걸린 장구모양 나무토막 죽방울이 사람을 휘돌고 훌~쩍 훌쩍 허공을 오가고,
넓적한 버나를 내 몸같이 놀리는 모습에 객석에서는 쉽 없는 감탄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큰들 정기공연의 백미인 130명 사물놀이.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말발굽 소리인 듯 굽이치는 세월의 소리인 듯 천지를 울려대는 북소리에 관객들의 심장도 같이 뛰다. 태평소 가락에 맞춘 130명의 사물놀이패는 15분 동안 신들린 무대를 보여주었다. 저절로 들썩이는 어깨를 숨길 수도 없거니와 애써 숨길 필요가 없었다. 먼 옛날 선님들도 이날의 북소리엔 아마 점잔을 빼고 있지만은 못했으리라. 분위기에 취해 온몸이 달아오르는 순간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살아 꿈틀댄다. 흥이다. 내 몸속에 잠자던 흥이 되살아난 것이다.



사물놀이에 참가한 130명, 이들은 전문 사물놀이단이 아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6월에 모여 사물놀이 연습에 한여름을 온전히 바쳤다. 창원 인근의 주민들이 모여 북 장단에 장구에 팽과리에 징을 치며 이날의 공연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일면식도 없는 주민들을 모아 3개월의 연습으로 이러한 공연을 만들어 낸다는 것, 이 어이없는 발상은 큰들이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힘들었을 터. 하지만 풍물은 우리의 SOUL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어온 모태음악이 아니던가? 우리장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 주인공이 될 수 있다.

PK VALVE

전국을 누비는 것도 모자라 해외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큰들이, ‘아마추어 130명 사물놀이’라는 대형사고(?)를 벌이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 메세나를 통한 피케이밸브(주)의 후원이다. 피케이밸브의 박헌근 대표는 ‘창원공단 1호 기업’으로 60여년의 역사를 지닌 피케이밸브를 밸브업계 세계 4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끌어올린 창원의 대표 기업인이다. 대표는 원하지 않지만 회사자랑 잠깐하고 지나간다. 국내 밸브 산업의 최초, 최고,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피케이밸브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피케이밸브의 박헌근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감사한다. 먼 나라까지 와서 일해주어 고마워한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의식주 세 가지 가운데 식과 주를 책임진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원아파트를 제공하고 방방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워 놓는 것은 기본이고 간식비도 따로 챙겨준다. 물론 식사도 3끼 제공이다. 그리고 또 있다. 머나먼 타국에 와서 일하는 만큼 고국도 가족도 그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피케이밸브는 매년 1명씩 선정, 고국으로 약 2주간 휴가를 보내준다. 무료 항공권을 덤이다. 결혼 등 경축일에도 고국에 보내준다.

이유는 단 하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잘 대해줘야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 우리나라를 좋게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문화예술지원원들 부족하겠는가. 회사 1년 수입의 일정비율을 떼서 사회공헌사업에 쓴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폴리텍Ⅶ대학과 장학협약을 맺고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기적인 성금과 경남오페라단 후원 등등..... 지면이 부족하다.

—130명 풍물 그 후....

“무대에 섰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에 창립행사부터 해마다 참가했다.”는 40대 주부는 공연 때마다 멀리 사는 가족들이 내려오니 풍물덕분에 가족만남의 기회도 많아졌다며 체계적인 풍물을 배우기 위해 정식풍물단원이 되었다.

“가족이 같이 연습을 해보면 놀라실 겁니다. 어른들은 외우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냥 몸으로 가슴으로 느낍니다. 그러다보니 연습 시작하고 조금만 지나면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하는 아이와 같이 참가한 엄마.

올해 북을 치며 함께했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내년엔 꼭 장구에 도전하겠다.”고 결심을 굳힌다. 한 여름 폭염보다 더 뜨겁게 달궈진 130명, 그들의 열정이 피케이밸브와 큰들에게 더 큰 일을 꾸미라고 부추긴다.

경남에너지(주) & 극단 <객석과 무대>

극단<객석과 무대>의 에너지 충전소, 경남에너지!!



지역 메세나활동의 선두주자 경남에너지(주)가 극단<객석과 무대>와 손을 잡았다. 경남에너지의 전방위 지원으로 극단은 불끈불끈 힘이 솟는다는데... 그 힘의 원천 경남에너지를 찾았다.

극단 <객석과 무대>의 올가을 정기공연은 지금까지의 어떤 정기공연보다 즐거웠다. 에너지산업의 선두주자 경남에너지와 극단 <객석과 무대>의 만남, 메세나 결연 때문이다. 경남에너지는 타문화단체와 3년여 메세나 결연을 맺어오다, 지난해 하반기에 극단 <객석과 무대>와 인연이 닿았다.

62회를 맞는 이번 정기공연에는 '경남에너지 데이'를 별도로 만들어 경남에너지 직원을 위한 공연도 올렸다. 처음엔 경남에너지 임원 몇 사람이 연극을 보았다. 연극을 관람한 한 임원이 "이 연극 우리 직원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계기가 되어 '경남에너지 데이'가 탄생했다.

경남에너지

경남에너지의 이미지는 젊음이다. 그만큼 매사에 진취적이다. 구태의연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메세나에 대한 정의도 남다르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대량 티켓구매뿐만 아니라 공연에 대한 조언과 함께 두둑한 후원금 봉투도 빠뜨리지 않는다. 지속적인 창작 및 공연활동을 위한 티켓구매에서부터 가장 현실적인 물질적 후원까지...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메세나 형태다. 이러한 대외적인 평가에





도 자만하지 않고, “결연기업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 경남에너지의 정연욱, 이택수 대표의 메세나 철학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극단 <객석과 무대>단원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

경남에너지는 메세나 이외에도 이전부터 수많은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를 통해 한 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집수리, 교복 지원 사업, 지역아동주택 개보수사업, 장애인축구단지원, 청각장애수술비용지원과 핸드볼협회지원, 다문화가정후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시설지원과 요금 경감 등... 이루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극단 <객석과 무대>

지역에서 연극으로 살아남기 참 힘들다.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다른 방법이 없이 연극만해서는 돈이 안 된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연극만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밥 먹는 것 보다 더 좋았던 연극, 이제 신명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후원기업에 누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준비했다. 이번 정기공연 ‘레전드 오브 타짜’는 휴먼코믹드라마로 ‘옥수동에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는 희곡을 업그레이드 시킨 작품이다. 원래부터 지루하지 않고 우는 재미, 웃는 재미가 잘 조화된 작품을 업그레이드했으니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숨소리에 땀 냄새까지 그대로 전해지는 작은 소극장에서 관객들은 삶의 통찰과 진지한 사색이 스며있는 연극에 빠져들었다.

—You & I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연극티켓은 자신이 볼 수도 다른 지인에게 선물 할 수도 있다.

티켓을 들고 가족과 함께 소극장을 찾을 때도, 지인에게 건넬 때도 경남에너지 직원들은 뿌듯하다. 회사에 대한 자긍심에 어깨가 절로 올라간다. 소극장 연극의 맛에 빠져 다른 이들에게 연극을 권하는 연극 홍보대사가 되고, 극단은 연극을 하며 경남에너지를 간접적으로 홍보한다. 참 제대로 만난 파트너다.

영화는 극장에서 돈 주고 보면서도, 연극은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초대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지역 연극판은 한사람 건너면 다 아는, 소위 인맥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연극인들 입장에서는, 이왕 만든 공연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누고 싶은 욕심에 공짜 티켓을 돌리기도 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연극은 공짜’라는 관행이 굳어져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구매한 티켓으로 공연을 관람했지만, 좋은 공연에 맞들인 경남에너지 직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극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스스로 지갑을 열 것이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연극을 보기위해 소극장에 들르는 것이 20년 만이다’, ‘힘들지 않고 재미있는 책을 한권 읽은 느낌이다’, ‘연극이라는 장르는 난생 처음이다. 기념비적인 날이다’, ‘진정한 문화인으로 태어난 것 같다’.... 연극이 끝나고 난 후 배우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았다. 뒤풀이도 함께했다. 어려울 수도 있는 후원업체와의 만남이지만 동네형님들과 소주한 잔 나누는 느낌이었다고 단원들은 입을 모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레 벽을 허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내년은 경남에너지 설립 40주년이다. 지역민에게 더 다가가고 더 열심히 나누고 봉사하겠다는 경남에너지와 무언가 역할이 없을까 벌써부터 고민에 빠진 극단 <객석과 무대>. 내년 가을, 뭔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연극으로 탄생할 것 같다.

STX조선해양(주) & 대산미술관 / 안젤루스 소년소녀 합창단
/ 경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곱색깔 피부색이 함께한 ‘무지개 친구 만들기’

글/사진_ STX조선해양 이현경

STX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인 ‘다문화가정 지원’과 기존 결연 단체의 ‘예술활동 확대’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어 이번에 대산미술관에서 열린 ‘무지개 친구 만들기’ 행사장을 찾아가 서로 다른 피부색의 어린이들이 함께 희망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태양이 유난히 뜨거웠다. 짙은 초록의 잔디밭 위로 이글거리는 8월의 열기가 후끈거리며 숨을 타고 가슴으로 들어왔다. 창원 유동리에 위치한 대산미술관을 찾아가는 길은 그런 뜨거움과 함께였다. 아마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수줍은 듯 흘러나오던 오키리나 소리가 아니었다면 끝내 물을 찾지 못하고 지쳐버린 사바나의 사슴처럼 목말라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더위도 잊은 채 옹기종기 모여 한 곳에 집중하고 있던 아이들은 세계지도도 만들고 오키리나 연주법도 배우며 총기 어린 눈빛으로 선생님을 따르고 있었다. STX그룹 사회공헌활동의 주된 관심 대상 중 하나인 ‘다문화가정 지원’과 기존 결연 단체의 ‘예술활동 확대’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무지개 친구 만들기’행사는 STX조선해양의 주최로 안젤루스 소년소녀 합창단원 아이들이 참여하고, 대산미술관이 장소와 미술 교육을, 경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키리나 교육을 제공하면서 완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창원 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 17명과 안젤루스 합창단 22명을 초대하여 진행되었는데, 부모의 국적은 다르지만 창원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이 미술·음악 체험 프로그램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다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다. ‘무지개 친구 만들기’라는 이름은 7개의 다른 색이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다양한 국적, 문화를 가진 어린이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며 함께 어울려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8월 17일 오전부터 시작된 행사는 대산미술관 소개 및 견학으로 이어졌다. 회화와 조각 작품을 감상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이슬처럼 빛났다. 그리고 이어진 점심시간, 준비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낯선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잔디밭을 뛰어다





니며 함께 어울리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미술 체험 활동에서는 학년별로 나뉘어 클레이아트, 색 모래 등을 활용하여 지도를 만들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각 모듬이 힘을 합쳐 하나의 세계지도를 함께 완성해 가면서 서먹했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마지막 음악 활동에서는 경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만호 지휘자의 지도로 '오카리나'를 배우며 하나의 곡을 완성해 나갔다.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프로그램에 지친 듯 보였던

어린이들은 호흡법, 운지법 등 악기를 배워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생기가 살아났고 고사리같은 조그만 손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완성되었다. 처음 접한 오카리나의 매력에 푹 빠져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던 초등학교 3학년 이준아양은 '이제부터 매일 오카리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할거예요. 오카리나를 볼때마다 오늘 함께한 친구들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STX조선해양 선생님들이 기억날 것 같아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어느새 정이 들어 버린 친구들과는 아쉽게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은 무지갯빛 추억은 오랫동안 함께할 것 같았다. 🍃



경영의 숲에서 음악을 만나다

창원상공회의소

10월도 중반으로 넘어가 가을이 물씬 다가온 어느 오후, 창원상공회의소 주최로 창원호텔에서 '미래경영콘서트'가 열렸다. 강연장은 어중간한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배움을 앞두고 기대에 가득 찬 참석자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콘서트의 첫 순서로 하프와 플롯의 만남이라는 이색적인 테마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하프만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소리와 새가 지저귀는 듯한 맑은 플롯 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빚어내며 강연장 깊숙이 울려 퍼졌다. 음악이 주는 행복한 에너지 덕분에 본격적인 특강이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어느 때보다 편안한 얼굴로 경청하였다.

'미래경영콘서트'는 글로벌 미래를 대비하여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세계 미래포럼, 경남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경영, 디자인, 예술, IT, 미디어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적인 특강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예술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음악회를 함께 열고 있다.

"참석자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평소에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작은 음악회 덕분에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고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다고 해요. 기획자로서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매 행사마다 특색 있는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김규련 팀장이 말한다.

창원상공회의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원사 지원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메세나 활동도 그 일환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2009년 11대 회장으로 최충

경 회장이 취임하면서 상의 로비에 갤러리를 마련하여 지역작가들의 초대전을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창원 상공업을 대변하는 단체답게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의 동반 성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찾아가는공연

"nude & Identity"

...어쩌면 그리움

(주)창민테크론 CEO 김병주



상큼한 바람에 가을을 느낀다.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고독의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쩌면 가을은 따스함을 갈구하는 계절이 아닐까. 따스한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지는 계절. 이미 몰강해져 버린 그녀의 평퍼짐한 가슴팍에 기대면 금세 어린 시절로 돌아갈 것만 같은, 나에게 가을은 그리움의 계절이다. 40여 년 전 불의의 순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여성을 보는 눈을 달리하게 해 주었다. 여성을 성적대상이 아닌 생명의 원천으로 보게 하였다. 마음 속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nude & Identity" 전에 녹아있다.

色 이 빠진 전시회

3.15 아트센터 1층 3전시실엔 사진작가 김병주의 "nude & Identity"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누드라는 말에 콧불이 붙어질 수도 있으리라. 허나 "nude & Identity" 전은 아니다. 벗은 여인의 원초적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찾는다. 인체가 가진 굴곡으로 아름다움을 탐닉하기보다 여성이 가진 강인한 정체성을 찾아낸다. 작가 김병주는 과장된 팔과 손과 몸뚱이와 그 그림자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품고 키워냈던 수많은 우리의 어머니를 찾게 한다. 지나간 세월을 쫓듯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내 속에 감춰진 나를 찾는다. 색정이 빠진 누드 사진 속에서 있기를 한참.. 몸과 그림자와 비침과 반영 속에서 어느새 취재기지도 내가 아닌 나를 보기 위해 사진 속 모델과 한 몸이 된다. 김병주의 "nude & Identity" 전에는 또 한 가지, 색이 빠졌다. 모두 흑백이다. 색은 화장이다. 꾸밈이다. 색을 뺀 담담함으로 여인의 몸을 전한다. 가식적인 모습을 제거한 채 본연의 모습을 찾기를 권한다. 여성의 몸이 가진 선의 아름다움 너머에 담긴 내면의 철학을 이해하기를 권한다. 흑백의 누드를 보며 그 깊이감에 경건해진다.

작가, 그리고 CEO 김병주

누드를 통해 담담한 영상언어를 전달하는 김병주 작가는 초고온 단열재와 항공기 부품, 군사용 기계의 커버를 만드는 방위산업체 (주)창민테크론의 대표이기도 하다. 청년시절 <제일후지>에 다니며 일을 배운 그는 1980년 창민테크론을 창립하고도 사진에 대한 열정만은 식지 않았다. 평일엔 어쩔 수 없지만 주말이면 늘 카메라를 메고 떠났다. 전국을 누비며 30여 년째 풍경과 인물을 담아오던 90년대 후반, 그는 사진에 더 깊이 빠져든다. 취미의 사진이 아닌 전문가로서 학문적, 철학적 사진을 배우고 싶어졌다. 50대의 CEO 김병주는 바로 대학원에 진학한다. 그리고 경영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며 일반인들이 다루기를 꺼려하는 '누드'로 학위를 받았다. 그는 현란한 디지털보다 소박한 아날로그를 좋아한다. 하기에 그는 아직도 필름 작업을 한다. 자신의 필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인화, 현상하고 색을 만들어 낸다. 이번 사진전을 위해 촬영한 컷만 만 컷이 넘는다. 그 모든 사진을 직접 손으로 작업하고 골라냈다. 수년 전, 아들이 일을 조금 덜어주자 이제 더 쉬워졌다. 전문 CEO로서의 성공과 더불어 전문 사진작가로서의 성공까지 거머쥔 그의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누드를 통한 다양한 그의 이야기가 기대된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직원들의

문화 봉사 취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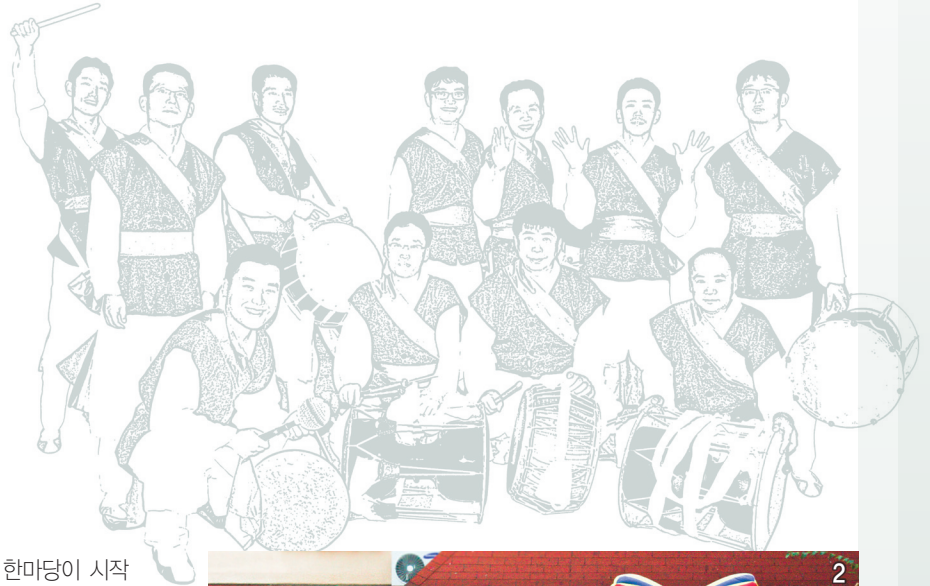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의 건들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토요일 오후, 진주시 문산읍 산 아래 조용히 자리 잡은 진주복지원이 모처럼 떠들썩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봉사동아리 '다솜봉사단'이 복지원 원생들을 위해 놀이 한마당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진주복지원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조금은 뒤떨어진,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공동체다.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주변 기업과 단체의 봉사 동아리들이 찾아와 건강 점검이나 시설품 정비 등 나름의 방식으로 도우며 온정을 나누고 있다.

그중 KAI의 다솜봉사단은 평소 어려운 학생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모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복지시설을 찾아가 식사를 제공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기가 있으니,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함께 즐기고 소통함으로써 외롭고 힘든 마음이 치유되고, 주는 이도 받는 이도 조금씩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문화 나눔으로
Fly Together!



봉사단이 정성스레 준비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놀이 한마당이 시작되었다. 재능 기부를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대가 없이 이곳까지 찾아와준 예술인들이 여느 전문 행사 못지않은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오랜만에 신나는 무대를 접하자 원생들도, 직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움에 흠뻑 젖어들었다.

그 가운데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경남메세나' 8호에도 소개한 바 있는 KAI의 풍물 동아리 '민예'가 바로 그들이다. 이곳에 모인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풍물 공연을 한마당 펼치며, 복지원 마당을 신명나는 가락으로 채워나갔다.

1994년 창단된 직장인 동아리 '민예'는 매주 연습과 공연 활동을 병행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 어느새 직장인 동아리를 넘어서는 전문 풍물단으로 성장했다. 작년 가을 진해에서 열린 국악공연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초청 받아 풍물의 흥과 신명을 전파하며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창단 멤버로서 현재 민예를 이끌고 있는 이기범 회장은 "우리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덩달아 즐거워집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기구요, 오히려 연어가는 것이 많지요. 힘은 들지만 앞으로도 음악과 봉사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라고 말하며 공연이 끝나 아쉬워하는 원생들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진주복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낮익은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다. 원생들의 손을 꼬옥 잡고, 풍물의 흥겨운 가락에 맞춰 함께 마당을 뒹굴던 복지원 원장 이증기 신부다. 사진 옆에 적힌 말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온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사랑은, 필요로 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KAI의 직원들은 잘 알고 있는 듯하다. 🌸



1 KAI 풍물 동아리 '민예'
2 봉사단이 준비한 놀이 한마당 I
3 봉사단이 준비한 놀이 한마당 II

꽃의 시인 대역(大興)

김춘수 시집

글/사진 _ 박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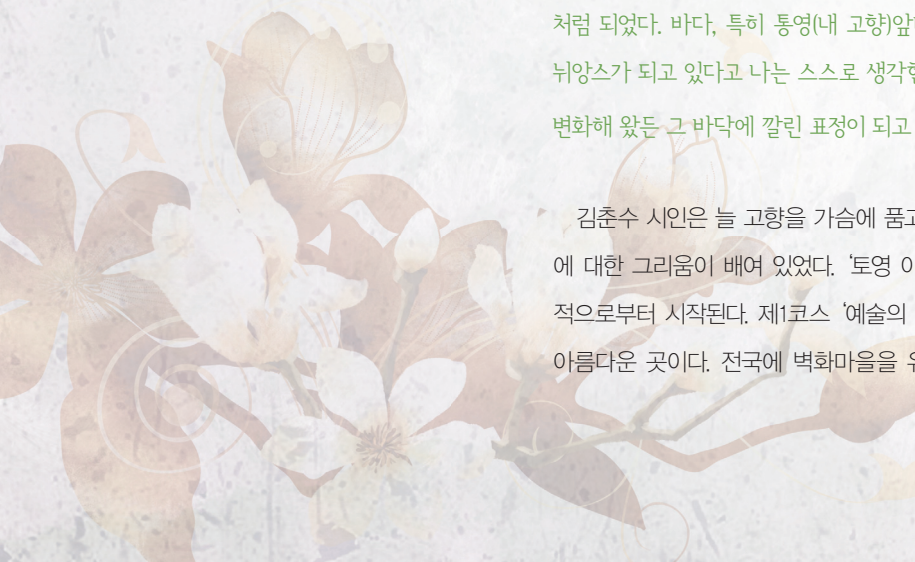
1. 고향, 통영을 가슴에 품다

김춘수 시인 생전에 세 번 뵈기 기회가 있었다. 1996년 마산 돌섬에서 “문학인 만세” 라는 행사를 했다. 배를 타고 건너 가야 하는 돌섬에서의 문학행사는 꽤 낭만적이었다. 종절 모에 나비넥타이 차림의 김춘수 시인께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강의하시던 모습을 뵈는 것이 첫 번째, 나머지 두 번은 서울에서 문학행사를 할 때 뵈었다. 누군가 나를 경남에서 올라왔다고 소개하자 김춘수 시인께서는 매우 반가워하며 격려해 주셨다. 수많은 시인들을 앉혀놓고 경상도 억양으로 죽비처럼 내리치던 말씀들이 인상 깊었다. 작고 깡마른 체구였지만 목소리는 카랑카랑 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 로 시작하는 시 「꽃」 은 교과서에서 처음 만났다. 타인에게 처음 마음을 열 때, 사랑의 감정을 문득 느낄 때 우리는 곧잘 「꽃」 을 읊조렸다. 시인은 어느 글에서 “나의 사춘기는 너무 늦게 온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와서 너무 오래 머물다 간 것 같다” 고 쓴 적이 있다. 소년처럼, 청년처럼 살다가 간 김춘수 시인의 첫 시집 제목은 「구름과 장미」 이며, 유고시집은 현대문학에서 나왔는데 제목이 「달개비꽃」 이었다. 영원히 꽃의 시인으로 불리며 언어실험, 형식, 사상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작품과 시론을 남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인의 가슴에는 고향 ‘통영’ 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다가 없는 곳에 사는 것은 답답하다. 바다가 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고향 바다는 너무나 멀리에 있다. 대구에서 20년이나 살면서 서울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나는 자주자주 바다를 꿈에서만 보곤 했다. 바다는 나의 생리의 한 부분처럼 되었다. 바다, 특히 통영(내 고향)앞바다-한려수도로 트인 그 바다는 내 시의 뉘앙스가 되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한다. 그 뉘앙스는 내 시가 그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든 그 바탕에 깔린 표정이 되고 있다. 『김춘수 문학앨범』 에서

김춘수 시인은 늘 고향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생전에 쓴 산문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통영 이야기-길’ 제1코스는 김춘수 시인의 흔적으로부터 시작된다. 제1코스 ‘예술의 향기길’ 은 강구안 해안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전국에 벽화마을을 유행시킨 동피랑 마을 입구 골목에





Kim Cheon Soo

김춘수시인의 집이 있었다.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작은 골목 안에 표석이 세워져 있다. 대문이 열려있어 안을 들여다봤다. 잘 가꿔진 정원과 잔디밭이 인상 깊었다. 시인의 작품에는 바다가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데 스무 발자국만 뛰어가면 바로 바다다. 강구안 바다엔 거북선이 거대한 깃발을 꽂은 채 출렁이고 있다. 서울살이에도 경성도 역량을 버리지 않은 시인의 성품이 잘 드러난 글을 생각해 본다. “내 고향 사람들이 경성에 산다고 경성말도 아니고 내 고향사투리도 아닌 이상한 억양으로 주고받는 말들은 듣기에 여간 거북하지 않았다. 그 역시 메스꺼웠다” 고.

명절이면 꼭 통영에서 올라오는 생선을 드

시고, 늘 고향을 그리워하셨다고 한다. 빈 배들이 묶여 출렁이는 바닷가. 삶이었고 위안이었고 꿈이었던 바닷가에서 시인은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을 배웠다.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싫어서 가끔 굶기도 했다. 시인은 통영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고, 토호였던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시인에 대한 자료를 챙겨 통영 김춘수 유품관을 찾았다.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친구였던 화가 전혁림, 그의 미술관과 지척에 있었다. 1995년 전혁림 화백의 팔순연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통영나들이를 하기도 했다. 유품관은 시인께서 생전에 생활하던 공간을 그대로 재현해놓았다. 깔끔하면서도 단출하다. 평소 소식(小食)을 하셨고, 집도 텅 빈 듯 해 두신

모습이 그대로다. 지팡이와 모자, 그리고 나비 넥타이, 즐겨 읽으셨다는 철학사전등이 시인의 체취를 간직한 채 놓여있다. 문학잡지들이 기획한 김춘수 시인에 대한 자료들을 읽다보니 작품만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일었다. 가령 이런 글을 읽다보면 그렇다.

“어느 날 학교에서 김춘수 시인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의 총장이 비서와 함께 뒷문으로 들어와서 잠깐 참관을 한 일이 있었다. (그 총장은 가끔 그렇게 강의실 순회를 했다고 한다.)그때 열감을 하던 그는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변하던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총장일행을 쏘아보면서 비서에게(나가시오, 강의 중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당장 나가시오)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러자 학생들도 뒤를 돌아다보고는 우영거리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눈치 챈 총장 일행이 황급히 어색한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다음 순간 그는 탁자 위에 출석부를 팽개치듯 놓고는 강의를 중단한 채 나가버렸다는 것이었다.” - 내가 본 대구시절의 김춘수 시인, 이진홍(시인)

평소 깔끔하고 자존심이 높았던 시인의 성품을 잘 말해주는 일화다. 시인께서 병원에 입원한 4개월 여 동안 많은 후배와 제자 시인들이 병실을 찾았다고 한다. 시인께서는 위독하셨다가 갑자기 회복되기도 하여 문병 온 이들을 긴장 시켰다. 그러시다가 2004년 11월 29일 오전9시경 따님들 곁에서 눈을 감으셨다.

2. 릴케와의 운명적인 만남

김춘수 시인은 1922년 통영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939년 11월 경기공립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자퇴를 한 후 일본으로 건너갔다. 자퇴를 한 이유는 담임선생님과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벌을 받지 않았고, 다만 학교에 대한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간을 어슬렁어슬렁 보내다가 어느 날 일본 도쿄의 헌책방에 들어간 시인은 시집 한 권을 사게 된다. 그 책이 바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이었다. 그 시를 읽고 김춘수 시인께서는 정말 시라는 것이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생전에 시인께서는 시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릴케의 시를 낭송해 분위기를 빛내주기도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늘 릴케의 영향으로 시인의 길에 들어섰다고 했다.

일본은 김춘수 시인에게 시련을 안겨주었다. 1940년 동경의 일본대학 예술학원 창작과에 입학했으나 2년 뒤 퇴학을 당했다. 그 이유는 일본 천황과 총독 정치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시인은 사상혐의로 요코하마 헌병대에서 1개월, 세다가야 경찰서에서 6개월간 유치되었다가 팔에 쇠고랑이 차인 채로 송환되어왔다고 한다. 해방이 되자 시인은 고향인 통영으로 돌아왔다.

1944년 부인 명숙경씨와 결혼하였고 1945년 통영에서 유치환, 윤이상, 김성옥, 전혁림, 정윤주 등과 통영문화협회를 결성해 근로자를 위한 야간중학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연극, 음악, 문학, 미술, 무용 등 예술운동을 전개했고 극단을 결성해 경남지방 순회공연을 다니기도 했다. 실로 경남이 문화의 르네상스 그 중심이 되는 순간이었다. 1948년 첫 시집 『구름과 장미』를 간행하고 1949년 마산중학교에서 1951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그 후 동인지와 시집 등을 발간하며 한국시인협회상을 수상하고, 1959년 문교부에서 국어국문학



김춘수 _ 꽃

Kim Choon Soo



김춘수

과 교수자격증을 인정받아 마산 해인대학(현 경남대학교 전신)조교수로 발령받는다. 그 후 다시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1978년까지 재직하였다. 1979년부터 81년 4월까지의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특히, 1973년에 발표한 시론 '의미에서 무의미까지'를 통해 무의미시론을 주장하게 된다. 이 무의미시론은 평생 김춘수 시인의 시를 따라다니며 그의 시를 특징짓는 요소가 되었다. 문학평론가이며 시인이신 이승훈 교수에 의하면 김춘수 시인의 무의미시론은 허무의 빛깔을 보려는 노력으로 통한다고 한다. 결국 묘사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무의미시를 쓰면서 김춘수 시인이 발견한 것은 허무이고 이 허무의 빛깔을 보려는 것이 제2단계 무의미시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시론을 바탕으로 시를 쓴 시인께서는 1981년 국회의원(문공위원)에 피선되어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인께서 늘 후회했던 부분이다. 수상으로는 은관문화훈장, 대산문학상, 인촌상 등. 2004년 11월 29일 영면하시기 전까지 많은 시집과 시론집을 남겼다. 현대시100년을 기념해 선정한 현대시인 10인에 선정된 한국의 대표시인으로 사랑받고 있다.



김춘수

그의 아내 명숙경 여사가 위암으로 타계한 후 그리운 마음을 담아 '거울 속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89편의 시를 남겼다. "죽은 너는/시가 되어 돌아온다./네 죽음에 얽혀서 간혹/시인도 시가 되었으면 하지만, /잊지 말라./언제까지나 너는 한 시인의/시 속에 있다."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하다. 김춘수 시인은 김수영 시인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김수영의 「풀」을 보면서 써보고 싶었던 작품을 벌써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일종의 질투가 생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면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난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것이다. 김춘수 시인이 도쿄의 어느 헌책방에서 우연히 접어 들었던 릴케의 시집은 그를 위대한 시인의 길로 이끌었다. 통영에서 태어나 마산, 대구, 서울로 거처를 옮기며 살았지만 그의 가슴엔 늘 고향 통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내인 명숙경여사가 돌아가시자 더 자주 통영을 찾았다고 한다. 코발트블루의 바다를 영원히 잊지 못했던 시인은 그 색깔을 오래 가슴에 품고 싶었을 것이다. 2004년 2월 시인께서는 마지막으로 통영을 방문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천사가 되었다. 시인께서 아내를 두고 '거울 속의 천사'라고 하셨던 것처럼 시인 스스로 천사가 되신 것이다. 통영에 곧 김춘수 기념관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한다. 문화예술의 향기와 짙은 삶의 체취가 물씬 풍기는 강구안을 낀 아름다운 '꽃'과 '천사'의 기념관이 탄생할 것이다. 🌸

*김춘수 시인에 대한 자료는 김춘수 유품관 『시와반시』 2005년 봄호, 『현대시학』 1994년 3월호, 『현대시학』 2005년 2월호를 참고하였습니다.



김춘수 생가



*박서영 시인은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199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였고,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과 2010년 요산창작기금을 받았다. 시집으로 『붉은 태양이 거미를 문다』가 있다.

문화의 향기를 찾아서



합천, 그곳에서 선조들의 지혜와 장인정신을 엿보다

글/사진 _ (사)경남오페라단 전 나 은





작년 하반기 문화·예술 기행 때도 비가 오더니 올해도 우리의 여행길을 질투라도 하는 듯 가을 비가 내렸다.

경남 합천에서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열린다하여 경남메세나에서 그 기간에 맞춰 이번 기행을 기획하였다고 한다. TV드라마, 영화 세트장으로 유명한 '합천영상테마파크'와 고려 대장경판 진본을 공개해놓은 해인사, 그리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관람까지 이번 기행도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버스에 오르면서부터 발걸음이 설레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인 고려대장경판 진본이 해인사 장경판전을 떠나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한다. 이런 영광스런 기회를 만끽할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설렘 가득하고 목적지인 합천으로 향했다.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를 맞으며 도착한 곳은 '합천영상테마파크'였다.

입구에 '가호역'이 있어 진짜 기차역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입구부터 세트로 만들어놓은 간이역이었다. 참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가진 채 영상테마파크로 들어갔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전우치', '포화속으로' 외 드라마 '경성스캔들', '주몽', '선덕여왕' 등 수많은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CF촬영지로 잘 알려진 세트장을 직접 방문해보니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세트장은 이렇게 만들어져있구나. TV로 보는 것보다는 작고 협소하구나.'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세트장을 구경하였다.

이번 예술기행에는 어린 친구들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였는데, 이곳에서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나 여기저기 구경하고 쏘다니느라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였다. 드라마 속에서 본 세트에 앉아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며 마치 영화 속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양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상테마파크 내에 만들어져있는 극장에서는 옛날 뉴스프로그램을 상영해주었는데, '대한 뉴스'라는 제목의 흑백뉴스는 컬러TV만 보던 젊은 세대에게 낯설지만 재미있는 볼거리를 주었고,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잠시나마 옛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품다.

영상테마파크를 나와 1시간여쯤 달려 도착한 곳은 해인사였다. 해인사입구까지는 버스에서 내려 15분정도 걸어 올라가야 했는데, 비가 그치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걸으니 마음까지도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사철나무와 단풍나무들이 줄지어져있고 울긋불긋한 단풍들을 보며 걸으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발걸음엔 어느덧 경쾌한 리듬이 실려 있었다.

해인사에는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로 붐벼 그 인파에 한 번 놀라고,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판전을 둘러보며 빼곡히 들어서있는 81,258장의 대장경 판수에 또 한 번 놀랐다. 5200만여자의 글자를 손으로 직접 새겼다는 사실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경이로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놀란 건 1251년에 완성된 팔만대장경이 75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부식된 경판 하나 없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비밀은 장경판전의 건축법에 있다고 한다. 장경판전은 실내에 들어온 공기가 아래위로 돌아 나갈 수 있게 서로 다른 크기의 불박이 살창이 있고, 습도를 조절해주는 숲이 깔린 바닥 등 환기와 온도·습도 조절 등이 자연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되었는데 이것이 팔만대장경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옛 선조들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알아서 건축한 것일까. 해인사를 둘러보는 내내 "와~ 와~" 감탄사만 내뿜었던 기억뿐이다. 선조들의 끈기 있는 장인정신과 자연을 활용하는 지혜는 급박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해인사를 내려왔다.

드디어, 일반에 공개된 고려대장경판 진본을 만나다.

해인사에서 버스를 타고 5분정도 내려와 마지막 목적지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장에 도착했다. 고려대장경판 진본이 이곳의 대장경보존과학실에 전시되어 있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진본이 해인사 장경판전을 떠나 일반에 공개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서 이런 기회를 메세나 예술기행을 통해 만끽할 수 있게 되어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진본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고, 어떤 이들은 그 천년의 지혜와 기운을 얻어가기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대단한 대장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재현해 놓은 전시실을 들어가 보니, 나무를 베어서 판자를 켜고, 목판을 다듬고 경판을 새기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대단해 감탄조차 나오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글을 새기고 그 위에 먹칠을 해 종이에 글이 베이도록 하려면, 목판에 글을 거꾸로 새겨야 하는데 그마저도 너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정말 사람이 새긴 글이 맞는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교한 작업을 한 선조들의 장인정신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이 들게 할 정도였다.

그런 팔만대장경에 감동을 받은 어떤 이는 '금사경'이라 하여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순도 99%의 금으로 새 재현해냈는데, 획의 굵기와 글자간격 등 이 역시 사람이 쓴 글이 맞는지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을 떨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하였다.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모두 다 베껴 쓰는 작업인 사경을 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안내자의 말을 들으니 또 한 번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시간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종합예술로 일컬어지는 '사경'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어떠한 미사여구로도 그 감동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값진 시간과 경험으로 나를 돌아보게 된 시간

글을 쓰다 보니 지나치게 감탄만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예년에 다녀온 예술기행과는 다르게 이번 합천으로의 문화·예술기행은 단순히 바람을 쐬러 여행을 다녀왔다가기 보다는 옛 선조들의 장인정신과 지혜를 엿보며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45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장경천년축전 특별 전시를 끝으로 해인사는 향후 100년 동안은 고려대장경 진본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니,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 하루의 시간만으로 마음속에 원치 모를 뿌듯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우리의 국보를 직접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하였다.

메세나 기행을 통해 '빨리빨리' 문화에 길들여지고, 뭐든 쉽게 싫증내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번 기행도 '참 잘 다녀왔구나.'라는 뿌듯함으로 가을밤에 몇 자 꼬적어본다.



극단 <나비>

시골집 앞 텃밭에서 자유로이 하늘을 유영하는 나비를 보다



젊은 시절 연극인이려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어보지 않았을까? 고향에 살면서 고향 사람들과 함께 극단을 만들어 연극을 하겠다는 꿈.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꿈을 실현시키고있는 연극인이 여기 있다.

극단나비의 김동원 대표는 아직은 척박하지만 한 창원의 연극문화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당찬 연극인이다. 1996년에 '가야레퍼토리'라는 극단으로 시작하여 전문연극인 20여명과 직장인 연극인으로 구성된 '극단나비'와 '나비예술극장'이라는 86석의 전용극장까지 갖추는데는 수많은 땀과 눈물이 함께했다.

창원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나비예술극장'에서는 매년 2~3편의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서정적인 연극이 펼쳐진다.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톨툴 뭉친 단원들은 오늘도 최고의 작품을 꿈꾸며 창작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지만 한 극단 전문인력과 빠듯한 재정사정은 아직도 함께 해야만 하는 또다른 동반자다.

최근 경남메세나협의회를 접하게 된 김동원 대표에게 기업과의 매칭은 단비와 같은 정보였다. 아직은 기업후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지만 조만간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활동들이 생각나 가슴이 뚫다. 임직원을 위한 초청공연은 물론이고, 기업의 연극동아리를 결성하고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그 뿐 아니라 연극을 활용한 기업워크샵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이미 정리해 두었다. '나비예술극장'의 객석 86개의 등받이 커버에는 예술을 지원하는 좋은 기업을 알리는 홍보문구도 넣을 예정이다. 그리고 '나비공연예술아카데미'를 통해 시작될 청소년과 직장인을 위한 연극아카데미의 공식 후원사로도 등록시켜주고 싶다.

그밖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보다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펼칠 계획들이 그를 미소짓게 한다. 고향의 연극을 책임지겠다는 젊은 시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그에게 머지않아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다.



두루지야 플루트 앙상블

앙상블은 하모니다.

플루트를 통해 만난 좋은 친구들



두루지야는 러시아어로 친구들이란 뜻이다. 플루트는 목관악기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악기이다. 은빛으로 길게 뻗은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며 연주자의 호흡을 타고 가장 인간의 목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준다. 그런 플루트를 통해 만나는 좋은 친구들이 모인 두루지야는 사람냄새가 물씬 풍긴다.


2007년 모스크바 유학을 마치고 창신대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던 유선이 예술감독은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과 두루지야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초등학교생부터 50대 기업체 사장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직업의 소유자들이 어울려 앙상블을 이룬다. 두루지야의 사람냄새는 바로 그안에서 피어난다. 아직 어린 단원이라도 실력이 좋으면 50대 단원을 흔내키며 플루트를 연습시키지만 모두들 표정은 진지하고 즐겁다.

유선이 예술감독은 앙상블은 하모니다라고 주장한다. 함께 연습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어내는 것이 앙상블이며, 개인주의가 대세인 요즘 세상을 향해 던지는 두루지야의 메세지라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두루지야는 관객과도 호흡을 맞춘다. 클래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영화음악, 팝, 재즈, 가요를 관객들에게 선물한다.

그뿐아니라 플루트 외에도 다양한 악기와 예술부문을 접목하는 퓨전연주까지 시도하고 있다.

최근 경남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연주회를 준비하는 것도 두루지야의 몫이다. 하지만 외국곡의 편곡과 게스트초청 등 많은 비용을 필요로하는 이런 종류의 연주회가 부담스럽기만 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두루지야플루트앙상블의 유선이 예술감독은 기업의 후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한다. 현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연주를 통한 봉사활동의 연장선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원들에게 플루트를 전파하고 작은 연주회를 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다. 자신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플루트를 통해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이다. 하루빨리 좋은 파트너를 만나 이런 계획들이 하나 둘 이루어져가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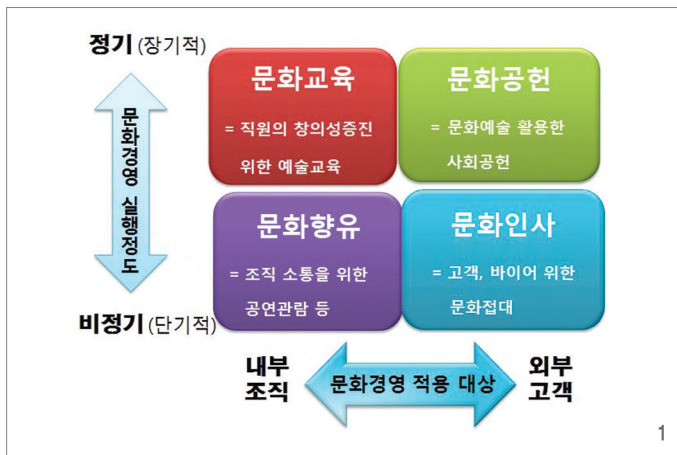
명품 중소기업으로의 도약, 정답은?

김소정_ 중소기업중앙회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표현도 이제 진부해질 만큼 요즘은 문화예술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다.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백화점, 레스토랑, 커피숍에서도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근처 공원, 도심에서 쉽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문화예술이 생활 속 깊숙이 스며든 요즘 기업도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제품의 질보다 디자인이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스토리에 자극을 느끼고 브랜드를 향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져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내부조직의 역량강화 및 우수인재유입을 위해 사내 예술동아리를 지원하거나 공연티켓을 나눠주는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용어와 개념이 '문화경영'(Cultural Management)인데, 문화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모든 요소에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경영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경영과 함께 '문화마케팅(Cultural Marketing)', '아트마케팅(Art Marketing)'이란 용어도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는데 문화마케팅이나 아트마케팅은 기업이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소비자·고객·바이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으로 주로 외부고객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라면 문화경영은 내부고객인 직원들에게도 문화예술을 활용한 전략까지 포괄하는 더욱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경영의 다양한 방식



최근 문화경영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 환경과 기업문화, 즉 기업의 경영마인드가 변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일례로 LG전자가 냉장고 걸면을 하상림의 꽃그림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도입하고 삼성전자는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에게 디자인을 의뢰하는 등 상품제작에 예술작가를 영입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활발히 시행 하고 있다.

또한 조직경영을 위하여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은 직원이 근무시간 중 20%를 자신이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조직원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Google Maps, G-mail 등 혁신적인 결과물을 창조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와 복지,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인식으로 우수인재의 영입이 어렵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낮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경영'이다.

물론 중소기업은 기업이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르고 문화예술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더욱 전략적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성공사례를 무조건 답습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문화경영을 통한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기업이 처한 환경, 기업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경영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험이 없다면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경영활동에 접목하고 있을까?

중소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경영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문화경영을 적용하는 대상(내부조직/외부고객)과 문화경영 실행정도(정기/비정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향유형은 중소기업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인 문화경영활동을 하는 유형이다. 내부 임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공연, 전시 티켓 제공 및 임직원 단체 관람을 지원하고 문화송년회 개최, 체육대회 및 워크숍 등 회사 사정에 따라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유형이다. 주로 문화경영을 처음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특성을 보인다.

둘째, 문화인사형은 외부고객 및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경영활동을 주로 하며,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전략적 후원·

협찬 및 상품, 유통, 서비스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예술을 도입하여 경영성과를 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문화인사형의 중소기업은 고객 및 지역사회에 좋은 기업으로 이미지화하고자 하며, 예술작품을 제품에 접목하여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교동씨엠이라는 한과제조업체가 있는데, 예술작품을 활용한 제품제작과 갤러리 운영, 음악회 개최 등의 문화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소비자의 미적 감각을 고려하여

한국의 전통색채와 문양을 제품에 사용하였고 신사임당의 시 ‘어머니 그리워(思親)’를 이용하여 한과를 포장하여 우리 전통에 대한 애잔한 그리움을 제품에 덧입혔다.



“ 중소기업은 성공사례를 무조건 답습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보다 문화경영을 통한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기업이 처한 환경과 기업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셋째, 문화교육형 주로 중소기업의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조직 내 소통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예술교육 및 예술동아리를 지원하는 문화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문화교육형 중소기업은 문화경영을 활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창의적인 직원으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는 (주)제닉이 있다. 제닉은 2010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기업예술교육사업의 지원을 받아 직장 내 클래식 동아리를 결성하였다. 매주 월요일마다 바이올린, 플룻, 클래식 기타 반으로 나누어 2시간씩 강습을 받고 있다. 악기를 구입하는 비용은 회사가 절반을 지원하고 레슨비용은 2만 원 정도는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지원하고 있다. 클래식 동아리가 처음 시작될 때는 직원의 70%가 참여했는데, 강습이 계속되면서 직원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강습 받는 직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현재는 직원의 90%가 참여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2010년은 전년 대비 230% 증가한 820억원으로 마스크 팩이라는 단일 제품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등 외형적인 성장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헌형’의 경우 외부고객을 위주로 문화경영을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가장 문화경영을 활발하게 한 경우가 많다. 특히 문화공헌형 중소기업은 자사의 고객 및 바이어, 내부 직원을 위한 문화경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문화경영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의 문화공헌형 중소기업은 (주)성도GL, (주)필룩스와 같은 기업이 있다. (주)성도GL의 경우 2007년부터 헤리에 ‘공간퍼플’이라는 전시장을 오픈하고 ‘헤이리심포니오케스트라’를 매년 후원하며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성도GL은 문화경영을 통해 2003년도 22%였던 이직률이 2006년 2%, 최근에는 이직률 0%에 도달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성도GL은 문화경영을

1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유형화 (자료 : 김소정,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현황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2011) / 2 교동씨엠의 신사임당 시를 활용한 한과 포장제품 / 3 (주)제닉 클래식 동아리 / 4 성도GL의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5 필룩스의 라이팅 콘서트 / 6 기업예술교육을 통한 성과 (자료 : 김소영, 기업예술교육 만족도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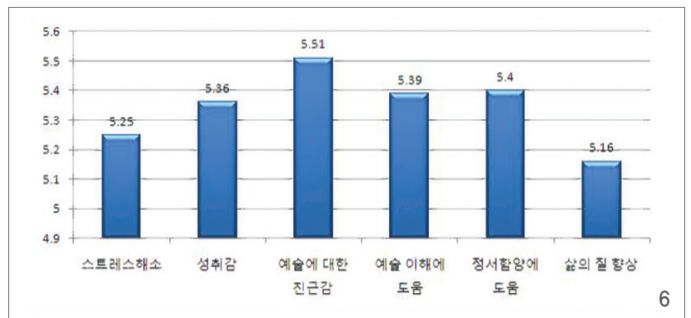
통해 가족적인 분위기와 여성에 대한 복지차원이 활발하여 종업원의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주)필룩스는 2001년부터 매년 가을 필룩스 라이팅 콘서트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직원가족 등을 초청하고 있다. 음악회를 통해 고객 및 지역주민들은 필룩스에 대한 애호도가 높아졌고 회사 거래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화공헌형 중소기업은 문화예술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도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동시에 펼침으로써 지역사회 내 기업의 인지도가 고양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매출액도 증가하고, 문화경영을 통한 신문, TV 등 언론매체에도 자주 노출이 되어 홍보효과도 크게 누리고 있다.



문화경영을 통한 성과

중소기업이 문화경영을 도입함으로써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먼저 기업문화가 개선되었다. 2010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기업예술교육사업 시행 결과 직장내 예술교육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었고 성취감이 높아졌으며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술교육을 통해 해소되고 능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술교육으로 평소 대화가 없던 직원들이 동아리 시간에 만나 공통관심사가 생김으로써 직원 간 관계가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효과가 있었다.



또한 문화경영으로 인해 기업의 마케팅 성과가 높아졌다. 즉, 기업이 문화마케팅 활동을 많이 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기업에 비해 더 호의적인 기업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고 더 높은 상표 충성도와 고객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고객에게 그리고 직원에게 나아가 지역사회가 사랑하는 명품 중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문화경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대기업처럼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화려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에게 공연티켓을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을 위한 음악회 개최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문화기업'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문화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예술교육,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하고 있다.

문화경영은 직원·고객·지역사회가 기업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문화경영'을 도입하여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품 중소기업이 되길 바란다. 🌸

글쓴이 김소정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화예술행정학과 석사 (논문 : 중소기업의 문화경영현황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경력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 입사,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문화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컨설팅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0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경남메세나가 전하는 공연정보 Mecenat in Culture Preview

2011년 연말,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겨울 추위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 줄 멋진 공연을 추천해드립니다.



● 315아트센터 장한나 첼로 리사이틀

12. 14(수) 20:00 대극장 VIP8만/R7만/S6만/A4만

세계 최정상 첼리스트 장한나가 들려주는 라흐마니노프와 피아졸라!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Op.34, No.14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G단조 Op.19

피아졸라 그랜드 탱고 외

7살에 국내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 9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음악 수업을 받다가 11살의 나이에 첼로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를 보고 싶은 마음에 참가한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국제 콩쿠르>에서 대상과 현대음악상을 수상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 등 다양한 지휘 프로젝트로 음악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첼리스트 장한나가 잠시 본연의 열정으로 돌아와 첼로 연주 리사이틀로 내한한다.

12월 14일, 315아트센터에서 리사이틀 파트너 피너 콜린스와 함께 라흐마니노프, 피아졸라를 비롯한 한국 관객이 사랑하는 클래식 레퍼토리로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문의 315아트센터 055)286-0315

● 김해문화의전당 오페라 라보엠

12. 22(목)~12. 23(금) 19:30 마루홀 _ VIP석7만/R6만/S5만/A3만

겨울을 포근하게 녹여줄 사랑의 대서사시,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푸치니의 대표작 오페라 <라보엠>

세계 3대 오페라 작곡가인 푸치니의 대표작 <라보엠>은 젊은 4명의 보헤미안들이 젊은 시절에 아주 잠깐 겪었던 너무나 슬픈 사랑 이야기이다. '그대의 찬송' '내 이름은 미미' '무젠타 아리아' 등 사랑을 표현하는 주옥같은 아리아와 아름다운 대사와 선율로 가득한 대표적인 겨울 오페라이다.

사실주의 이탈리아 오페라 푸치니의 라보엠 선율은 마치 우리를 현실세계에 빠져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로 아름답다. 인간내면에 숨어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 죽어가면서도 '사랑했으므로 내 삶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였노라' 고 고백하는 이 시대 최고의 휴먼드라마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연기와 가창력을 갖춘 국내 정상급 라보엠 전문 성악가가 공연하여 더욱 기대할 만하다. 김해 문화의 전당이 송년 선물로 마련한 그랜드 오페라 <라보엠>을 통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공연문의 김해 문화의 전당 055)320-1234



● **성산아트홀 뮤지컬 명성황후**

12.3(토) 15:00, 19:00 / 12.4(일) 14:00, 18:00 대극장
VIP99,000/R88,000/S66,000/A55,000

세계인이 함께한 감동의 뮤지컬 <명성황후>
되돌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역사가 예술로 승화돼!

명성황후 시해 100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1995년 제작된 뮤지컬 <명성황후>는 1866년 고종과 민자영의 혼례부터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개혁에 이어 1895년 을미사변까지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다.

비운의 국모 명성황후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명성황후는 우리 문화상품 제1호다. 이문열 원작 윤희진 연출로 1995년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올리면서 큰 성공을 거둔 후 수 차례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오늘 날,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핵심코드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바로 그 흐름을 태동한 산모다. 놓치고 싶지 않은 명장면, 화려한 무대와 전율, 감동의 스토리가 생생한 한국 뮤지컬의 자존심 뮤지컬 <명성황후>의 무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공연문의 성산아트홀 055)268-7900

● **경남문화예술회관 발레 호두까기 인형**

12.23(금) 20:00 / 12.24(토)17:00 대공연장
R5만/S4만/A3만/B2만

경쾌하고 화려한 올 겨울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서울발레시어터의 <호두까기 인형>!

일 년 중 가장 행복해지는 크리스마스 공연의 백미는 아마 발레 <호두까기 인형>일 것이다. 2011년 겨울, 서울발레시어터의 <호두까기 인형>이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온다.

서울발레시어터의 <호두까기 인형>은 국내 안무가 제임스 전의 창작 전막 발레로 한국적인 안무와 연출로 기존의 작품들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클라라와 왕자의 결혼식 장면에서 나오는 각 나라의 전통춤에서 한국 춤이 가미되었고, 2막의 마더진저는 커다란 드레스가 아닌 조선시대 왕비의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한다. 마더진저의 치마 속에서 나오는 아이들 역시 한복을 입고 상모를 쓴 채 튀어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이것 역시 서울발레시어터의 <호두까기 인형>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장면이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소녀의 상상의 세계를 아름다운 무대로 옮긴 서울발레시어터의 <호두까기 인형>이 2011년 겨울 어린이와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어른의 가슴에 최고의 감동을 선사 할 것이다.

공연문의 경남문화예술회관 1544-6711

● **거제문화예술회관 코믹시츄얼츠 퍼포먼스 “점프”**

12.3(토) 16:00, 19:00 대극장
R55,000/S45,000/A35,000

유머와 무술을 동시에!
세계적 문화 상품으로 부상한 점프!

뮤지컬 ‘점프’는 ‘스팀프’, ‘블루맨’과 함께 세계 3대 언버벌(nonverbal, 비언어) 퍼포먼스로 뽑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으로 2003년 초연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로 꼽히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2년 연속 판매순위 1위, 뮤지컬의 본고장 웨스트엔드의 피콕 극장에서 전회 매진 등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고자 기획된 ‘점프’는 태권도 뿐만 아니라 태권 등 동양무술을 중심으로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을 혼합하여 화려하면서도 짜릿한 마살아츠(martial arts)를 선보인다.

더불어 ‘점프’는 모두가 익숙한 소재인 가족이라는 배경 속에서 톡톡 튀며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해 시트콤을 보는 듯 코믹한 설정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선보이며 그 어떤 퍼포먼스보다 탄탄한 드라마 구성과 곳곳에 넘쳐나는 코미디는 남녀노소, 국적을 넘어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거제문화예술회관 055)680-1000

경남메세나가 전하는 공연소식

Mecenat in Culture Calendar



11
November

2011 / November

장사익 조관우 김수연의 <소리공감> 콘서트	김해문화의전당	11월 19일
2011 소리 그리고 발광	성산아트홀	11월 20일
노을예술무용단 제1회 정기공연	성산아트홀	11월 20일
총체 가무악 "회심곡"	성산아트홀	11월 22일
제1회 경남학생합창제	315아트센터	11월 22일
서울국제음악콩쿠르입상자 초청시리즈 Baritone 공병우 리사이틀	성산아트홀	11월 22일
뮤지컬 "미라클"	경남문화예술회관	11월 23일
진안청소년원드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315아트센터	11월 23일
2011이상근 국제음악제	경남문화예술회관	11월 24일~29
창원시립교향악단 제114회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11월 24일
박미은 김성희 제2회 피아노 듀오 콘서트	성산아트홀	11월 25일
뮤지컬 그리스 개관 6주년 기념공연	김해문화의전당	11월 25일~26일
판타지복합극 가족뮤지컬 "피터팬"	성산아트홀	11월 26일~27일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11월 26일
2011경남예술제	315아트센터	11월 29일
경남프리마양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11월 30일

12
December

2011 / December

창단48주년 마산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315아트센터	12월 1일
양상블 베를린 내한공연	경남문화예술회관	12월 1일
세종솔로이스츠 내한공연 Sejong Soloists 'The Three Violins'	성산아트홀	12월 2일
뮤지컬 "명성황후"	성산아트홀	12월 3일~4일
진주 하늘소리 합창단 정기연주회	경남문화예술회관	12월 6일
2011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	성산아트홀	12월 6일
백현경 바이올린 독주회	315아트센터	12월 6일
경남피아노듀오협회 제24회 정기연주회 가족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성산아트홀	12월 7일
창원시원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15아트센터	12월 9일
어린이 가족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김해문화의전당	12월 10일
호두까기 인형	성산아트홀	12월 10일~11일
보니타양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12월 13일
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315아트센터	12월 14일~15일
첼리스트 장한나 리사이틀	315아트센터	12월 14일
제44회 진주관악단 정기연주회	경남문화예술회관	12월 15일
차이코프스키 국제음악콩쿠르 수상자 콘서트	김해문화의전당	12월 16일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연극 "쥐"	성산아트홀	12월 16일~18일
창원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2011 송년음악회	성산아트홀	12월 16일
소년소녀 가장돕기 희망콘서트	경남문화예술회관	12월 17일
경상도소리보존회 공연	성산아트홀	12월 20일
창원YMCA 어린이합창단 제16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랫소리"	성산아트홀	12월 21일
호두까기 인형	경남문화예술회관	12월 23일~24일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12월 28일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김해문화의전당	12월 28일
성산솔리스트 앙상블	315아트센터	12월 29일
오페라 "현명한 여인"	성산아트홀	12월 29일~30일



GYEONGNAM MECEMAT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제안하는 문화송년회

품격있고 특별한 송년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클래식, 팝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등 공연의 감동과
참여의 기쁨이 함께하는 문화송년회.
고객·직원 및 직원가족들에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송년회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 기업체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합니다.
- * 송년회뿐 아니라 신년회, 직원연수,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1부 제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기업회원사에는 공연비용의 50%(100만원 한도)를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지원합니다.

Cover story

우포의 아침

원광종합건설(주)대표이사&환경사진가 조성제

가을은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날 모양입니다.

먼 겨울 여행을 준비하는 신비로운 우포의 이른 새벽

해오름과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